

### 방사선피폭선량보고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는 「방사선피폭선량보고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10월 9일(월)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피폭방사선량 보고대행 업체인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한일원자력(주), 서울방사선서비스(주) 등에서 참석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보고 형식 통일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오류 최소화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도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 유관기관 동정

### 과학기술부

#### “북한 핵실험 관련 과학기술부차관(박영일)브리핑발표문” 중에서 - 환경방사능 감시 및 핵실험 탐지장비 관련 -

과학기술부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원자력 시설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대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 등 전국 38개소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을 통해 전국토의 방사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 ○ 환경방사능 감시 및 조사·분석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날부터 방사능측정소를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국의 환경방사능 감시 태세를 갖추고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추석연휴 중에도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10월

8일 핵실험시 방사능누출 가능성과 영향을 분석하는 등 방사능감시 강화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즉시 환경방사능 감시망 감시주기를 단축하고, 대기·지하수·해수에 대한 전방위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부는 위기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환경방사능감시망 및 방사능 방재시스템 비상가동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환경방사능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정부의 대비태세를 신속히 알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핵실험 5시간만에 방사능 탐지기와 장비도 없으면서 남한지역에 방사능 검출이 없다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부는 핵실험 당일인 10월 9일부터 평소 15분 간격으로 감시하던 38개 환경감시망을 2분으로 단축하고, 매일 분석하던 대기중의 방사성 핵종 분석도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빗물은 12일 3개 지역(강릉, 춘천, 군산), 13일 1개 지역(강릉), 20일 4개 지역(서울, 춘천, 부산, 제주)을 조사하였고, 지하수는 12일과 19일에 3개 지역(과주, 철원, 고성)을 분석하였으며, 해수에 대해서도 12일 4개 지점(동해, 강릉, 속초, 주문진 앞바다)과 13일 동해 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통일전망대와 도라산 전망대에 임시감시망도 설치하였으며, 이동 감시차량을 이용하여 휴전선 일대의 방사선량도 측정 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는 핵실험 이후에도 몇 차에 걸쳐 방사능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대기·빗물 지하수 등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방사능은 정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핵실험 탐지장비 및 분석능력

스웨덴으로부터 임시 도입한 제논측정 장비는 양국간의 비공개 약속에 따라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으나,

핵실험 이전부터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핵실험 실시에 따라 반입을 최대한 서둘렀으며, 우리나라 전문가 4인이 제논탐지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동 장비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에서도 사용하는 장비로서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시설의 사고 등에 대비한 일반 환경방사능 감시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핵실험 탐지용 시설 및 장비는 부족합니다. 특히 제논 측정장비는 주로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로서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제논 탐지장비가 없다고 하여 방사능 탐지와 방사능 방재능력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황사에 포함된 극미량의 방사성 세슘 검출능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등 인체와 환경유해 방사능 탐지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방사능 방재시스템은 IAEA 회원국에서도 활용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방사능 방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제9회 세계핵의학학술대회』 개최

“세계핵의학의 균형적인 화합과 미래도약”을 주제로 70여개국 3,500여명 참가

10월 23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핵의학의 균형적인 화합과 미래도약”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9회 세계핵의학학술대회』의 개최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핵의학회(회장 이명철)의 주최로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원하에 10월 22일(일)부터 10월 27일(금)까지 6일간 진행되었다.

개회식에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이명철 세계핵의학회장, 정수교 대회조직위원장, 브카르트(Burkart)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와그너

(Wagner) 전 세계핵의학회장이 참석하였다.

김 부총리는 개회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핵의학 논문수 세계 4위, 개인당 논문수 세계 1위, 사이클로트론의 개발 등 핵의학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국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핵의학자들의 의욕적인 열정과 노력 때문이라고 핵의학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세계핵의학자들에게 최근 의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핵의학발전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였다.

이번학술대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70여 개국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핵의학 분야의 올림픽으로서 전세계 핵 의학자들 간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핵의학 발전과 국가별 불균형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대회 주요행사는 학술 프로그램과 핵의학기기 전시

회로, 학술 프로그램은 120여개의 본회의, 심포지움, 연수강좌 및 특별세션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의 석학 160여명이 연사로 초청되어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1,2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각국 정책 입안자, 정부관료 및 산하 단체 또는 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핵의학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정책 제시를 이끌어 내는 장을 마련하였다.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된 핵의학기기 전시회에는 필립스, GE, 지멘스를 비롯해 국내외 70여개의 핵의학 관련 업체가 참여하였다. 이 전시회는 핵의학 분야의 첨단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10월

22(일)~10월 26(목)까지 5일간 전시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서 국내 연구진의 국제적 위상 향상 및 역할이 증대 되고, 우리나라가 핵의학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의 인식이 향상되고 국내외 핵의학 연구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체의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